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FLORIDA

가제 : 플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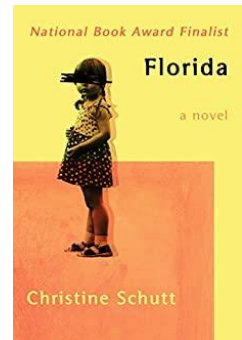
저자 : Christine Schutt

출판사: Open Road Media

발행일: 2013년 8월 6일

분량 : 168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National Book Award 결선작, 2020 Literature Award 수상자의 소설

★ "이것은 용기의 초상화이자, 한 예술가의 초상화이다." - 『Romancer Erector』의 저자, 다이앤 윌리엄스

★ "날카로운 관찰력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어린 소녀의 고뇌와 역경에 대한 완고한 지구력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 『Samuel Johnson is indignant』의 저자 리디아 데이비스

소설의 배경인 플로리다주 미드웨스트는 사람들에게 낙원 같은 환상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곳에서 살고 있던 어린 소녀 앨리스에게 플로리다는 절대 아름다운 낙원일 수 없었다. 앨리스는 열 살 때부터 부모 대신 부유한 친척집과 부모, 임시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 손에 맡겨져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살아남기 위해서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 반드시 적응해야만 했다. 앨리스를 맡게 된 임시 보호자들이 하나 같이 그녀를 그녀의 엄마와는 최대한 다른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앨리스는 숨이 막혀 올 때면 책으로 도망쳤고 때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소녀가 과연 이 가운데에서도 곳곳하게 자신을 지켜 낼 수 있을까? 우아하고 서정적인 산문으로 생존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소설이다.

앨리스의 아빠는 앨리스가 다섯 살이었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호수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익사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2년 간 딸 앨리스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녀의 엄마 앨리스 (‘앨리스 시니어’)는 평온한 분위기에 언제나 햇살이 가득한 플로리다에 정착한다. 하지만 실상은 앨리스 시니어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플로리다에도 역시 혹독한 겨울은 찾아왔고 엄마의 남자친구 ‘월터들’(작품 속에서 앨리스와 앨리스 시니어는 이 남자친구들을 다 '월터'라고 부른다)은 하나 같이 잔인한 남자들이었다. 앨리스 시니어가 사건 사고를 만들고 있는 동안

그녀의 엄마와 오빠는 조용히 재산을 불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가 열 살이 되던 무렵 앨리스 시니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바람에 앨리스는 엄마마저 떠나 보내고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앨리스는 결국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앨리스는 열 세 살이 될 때까지 빌리 삼촌과 프란세스 숙모와 함께 살았다. 그들은 3 년동안 앨리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했고 멋진 신발과 옷을 입혔다. 또한 앨리스는 3 월마다 애리조나로 가서 삼촌의 가족들과 호화로운 휴가를 즐겼고, 삼촌의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승마를 배우는 등 화려한 삶을 누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앨리스가 철저히 이 가족의 규칙을 지키고 합당한 매너를 수행해야만 주어지는 것이었고 어떤 일이든 삼촌과 숙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다.

그 후, 앨리스는 할머니 노나와 함께 몇 년 동안 살게 되었다.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앨리스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그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었다. 때문에 앨리스는 이 시기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남자들과 맺었던 비슷한 방식으로 또래 남자 아이들과 관계를 맺곤 했다. 그리고 앨리스는 마침내 성인이 되어 뉴욕으로 가게 되고 그 곳에서 역시 엄마처럼 고단한 남자 관계에 빠져 난항을 겪게 되긴 하지만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자, 영어 교사로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시작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아빠가 바랐던대로 시인의 길을 탐색해보기도 하고 엄마와 여름 휴가를 보내며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엄마가 있는 캘리포니아 찾아간다. 이후 앨리스는 엄마와 함께 자신의 터전이 된 뉴욕에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불확실한 상태였다. 앨리스는 다른 젊은 이들과 달리 요즘 유행하는 최신 스타일의 옷을 입는 대신 엄마가 직접 만들어 준 옷을 입었고 엄마의 가족들과 달리 호화로운 휴가를 가지도 않는다. 대신 앨리스는 엄마가 그랬듯이 플로리다로 다시 이사 가는 꿈을 품는다. 하지만 다시 거짓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습관이 재발한 엄마 때문에 이 불안정성은 더 심화되고 만다. 그리고 그 이후 엄마는 점점 건강히 악화되는 바람에 요양원에 입원하게 된다. 결국 앨리스는 뉴욕에서 이제 자신의 행복한 삶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느꼈을 때, 또 다시 두 번째 상실을 맞이하게 된다. 앨리스 시니어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이 상실은 지금껏 앨리스가 겪었던 슬픔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성인의 삶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 과거와의 유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을 한 편의 시처럼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슈트 (Christine Schutt)는 2004년 National Book Award 소설 부문 결선작인 이 작품과 시인 존 애쉬 베리 (John Ashbery)가 타임지의 문학증보판을 위해 선정한 1996년 최고의 작품으로 단편 모음집에 수록된 『Nightwork』의 저자이다.

제목 : AN UNEQUAL DEFENSE

가제 : 언이퀄 디펜스 (데이비드 아담스 시리즈 2권) - 음모인가? 망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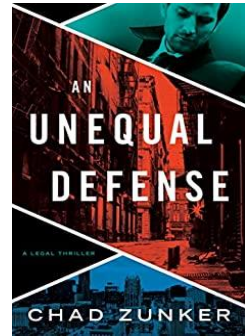
저자 : Chad Zunker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20년 5월 19일

분량 : 247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200,000명 이상의 독자의 사랑을 받은 책

* 킨들 및 아마존 베스트 셀러 1위

* 2019년 10월 'Amazon First Reads' 선정

*“굿 윌 헌팅과 본 아이덴티티를 섞어 놓은 듯한 이야기”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Under Fire』의 저자, 프레드 버튼

1권에서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하고 오스틴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회사에서 야심차게 경력을 쌓기 시작했던 데이비드 아담스 변호사는 엄청난 월급에 최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화려한 법조인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에게 불길한 경고를 전했던 동료 하나가 충격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그는 이 회사에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 후 동료의 자살 경위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시내에 있는 비밀 노숙자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곳에 있는 소외된 영혼들을 돕고 싶어하게 된다. 그 중 노숙자 하나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데이비드는 회사에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는 정의를 위해 과감히 비밀스러운 전쟁에 뛰어들다.

이제 데이비드 아담스는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자신의 멘토인 토마스 그레이와 함께 돈보다는 정의를 쫓는 것을 목표로 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빈민과 노숙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수익을 낼 사건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레벨 (Rebel, 반역자)'라고 불리는 한 노숙자 출신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맡게 된다. 이타심으로 뚝뚝 뚫린 한 변호사가 자기 자신과 정의, 혼란에 맞서 싸우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돋보이는 스릴러이다.

서른 일곱 살, 5년 째 노숙 생활 중인 그는 자신이 낯선 장소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는다. 그는 자신이 검은 스키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모자를 벗어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모자는 분명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는 일평생 모자를 써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단 한번도 본적 없는 군청색 재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란다.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군용 표식이 바느질 되어 있었다. 그는 일어나 골목길 양쪽을 훑어보았지만 주위에는 더러운 담요를 덮고 골판지 위에 누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노숙자들뿐이다. 그는 잠시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고 답을 찾기 위해 양쪽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자 한 쪽 주머니에서 익숙한 금속체가 만져졌다. 그것은 바로 총이었다. 하지만 총 역시 그의 것일 리가 없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총을 싫어했고 총을 사용하지 않은지도 벌써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레벨은 손을 덜덜 떨면서 문득 그의 왼쪽을 바라보았고 그 곳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차림이었는데 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 건물의 다른 뒷문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한 얼굴을 발견한다. 레벨은 혹시 그 남자가 자신을 찾으러 온 러시아 요원인지 혹은 CIA 요원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러시아인들에게 잡히는 것보다 CIA 요원들에게 잡히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다.

한편 집세를 아끼기 위해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잠을 자고 있던 데이비드는 한 밤중에 사무실 입구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고 불안한 마음에 야구 배트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간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손님은 도둑이 아니라 법률 보조원이 ‘닥’이었다. 다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를 찾아온 닥은 ‘레벨’이라는 노숙자가 ‘루크 머피’라는 검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며 그를 도와줄 사람은 데이비드뿐이라고 말한다. 데이비드는 죽은 검사의 이름을 듣자마자 소름이 끼쳤다. 루크는 그와 같은 고향에서 자랐으며 스탠포드에서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모두 상세히 알고 있었다. 닥은 레벨이 과거에 자신이 참여했던 위험한 싸움들과 온갖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로, 결코 사람을 총으로 쏘서 죽일 인물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차마 자신의 친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살인 용의자를 변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닥은 이전에 억울하게 죽은, 데이비드의 노숙자 친구 베니가 살뜰히 돌보던 사람이 바로 레벨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소중한 친구인 베니의 이름을 들은 데이비드는 결국 레벨의 변호를 맡기로 한다. 그 후, 그는 레벨과 머피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익명의 정보 제공자와 노숙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부패한 권력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점차 레벨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레벨은 정말 그의 주장대로 러시아 요원들 혹은 CIA의 음모의 뒷에 걸린 희생자일까? 혹은 미치광이 망상가이자 살인범인 것일까? 인간적인 고뇌와 연대 의식을 조망하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채드 전커 (Chad Zunker)는 『An Equal Justice』, 『The Tracker』, 『Shadow Shepherd』, 『Hunt the Lion』의 저자이다. 법정 스릴러 전문 작가인 그는 미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법률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지금은 Community First에서 일하면서 노숙인들이 저렴한 돈으로 영구적인 주거지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목 : THE NEW WILDERNESS

가제 : 커뮤니티 - 바이러스와 환경 재해를 피해 야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두 모녀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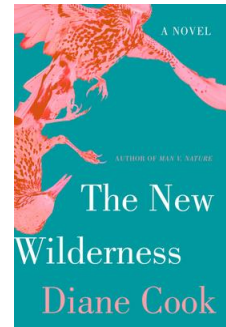
저자 : Diane Cook

출판사: Oneworld Publications

발행일: 2020년 9월 3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잔인한 동시에 아름답기까지 한 작품이다."- 『Station Eleven』의 저자, Emily St. John Mandel

★ "끔찍하고 통찰력이 가득한 소설. 어두우면서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는 모성애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멸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퍼블리셔 위클리』

베아와 그녀의 다섯 살짜리 딸인 아그네스는 인구 과밀과 무자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스모그와 오염으로 황폐화 된땅에서 살고 있다. 베아는 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도시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안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거의 버려지다시피한 '황무지 (Wilderness State)'로 가는 것이었다. 베아는 그 곳에서 과학 실험 대상자와 난민 사이의 어중간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환경 오염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기후 재앙과 바이러스 출현 등 현재의 사태에 경종을 울리는 디스토피안 소설이다.

아기가 베아의 몸 속에서 나오고 있다. 베아는 스스로 아이의 목에 감긴 탯줄을 끊었고 아기의 미끌거리는 입 속에 공기를 불어넣는다. 베아의 살갗은 열기 속에 타 들어가고 있었고 아기를 낳으려고 누운 자리 근처에는 귀뚜라미들이 울고 있다. 베아는 근처에 있던 막대기와 돌로 땅을 판 후 스스로 태반을 문었다. 베아는 태어났을 때는 온통 젖어있었던 아기의 몸이 점차 사막의 먼지와 열기로 인해 갈라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기의 이마에 모래를 칠했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가방에서 허브들을 꺼내 아기의 몸에 바른다. 그리고 아기와 자신의 냄새를 맡은 동물들이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순간, 베아는 8년 전 아그네스를 나올 때 병실에서 바라보았던 풍경을 떠올렸다. 의사와 간호사는 베아의 벌어진 다리 사이를 바라보다 마치 동물을 꺼내듯이 아그네스를 베아의 몸에서 잡아당겼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이 소독되어 있고 안전하게 정리 되어있던 무균실 대신 먼지와 열기가 가득한 곳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코요테들에게 돌을 던지며 겨우 출산을 했다. 베아는 아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마치 베아를 질책하는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베아는 아기를 이곳에 데려온 것을 후회한다. 베아는 혹시 아기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 베아의 마음을 알아챈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그리곤 곧 아기를 질식시켜 죽여버렸다. 엄마로서 그 아기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기의 생명을 끊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 전등에 불을 배터리가 남아 있었던 시절 베아는 밤에 돌아니다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동물들의 두 눈을 자주 마주치곤 했다. 그 때마다 베아는 늘 공포에 휩싸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베아는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든 동물들이 있는 풀 숲으로 바짝 다가섰고 그럴 때면 동물들은 마치 주인에게 복종하는 개들처럼 자세를 낮추고 잔뜩 풀이 죽어버렸다. 베아는 동물들을 쫓아내다 얼떨결에 자신이 방금 그랬던 것처럼 이 황야의 들판에서 홀로 출산 중인 어미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베아는 그 사슴에게 마치 포획자라도 된 것 같은 자세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 사슴은 자비를 구한다는 듯 고개를 내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아는 바로 그 어미 사슴처럼, 새로 태어난 여성이자 자신의 아기인 작은 생명을 껴안고 살아주며 아기에게 흠 없는 첫 밤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생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 꿈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베아는 얼마 전부터 뱃속의 아기가 더 이상 딸꾹질도 하지 않고 발길질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챘고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베아는 아기와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슬픔을 껴안기로 한다. 다시 캠프로 돌아간 베아는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는 아그네스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잔뜩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베아는 아그네스 역시 자신처럼 이 곳에 살면서 점점 먹잇감이 아닌 포식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베아가 아그네스를 데리고 이 황무지로 온 것은 3년 전, 정부에서 20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스터리한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실험 참가자들은 ‘생존 경쟁’이라는 거대한 고난에 맞서야 했다. 실험 참가들 중 글렌은 일명 ‘주요 인사’였는데 그는 한 대학에서 온 인물로 그의 아내와 함께 이 곳에 와서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며 활과 화살을 이용해 동물들을 사냥하고 가족을 벗겨 쓰는 법과 위험한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도록 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자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열정을 잃었고 실험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점차 이제는 난민 신분이 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황무지에 도착하면서 이곳 사람들은 내면의 폭력성을 더 극렬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곳을 지배하는 단체인 레인저스는 사람들에게 7일 이상 한 장소에 머물지 말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수상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곳을 향해 척박한 땅 위를 옮겨 다녀야 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베아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딸과의 유대감 때문이었다. 베아는 점점 야만인들로 변해가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근 미래의 환경 재앙을 배경으로 인간과 모성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다이앤 쿡 (Diane Cook)은 Guardian First Book Award, Believer Book Award 및 Los Angeles Times Art Seidenbaum Award for First Fiction의 최종 후보였던 소설 『V. Manture』의 저자이다. 그녀의 글은 Harper 's, Tin House, Granta 및 기타 간행물에 실렸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Best American Short Stories 및 The O. Henry Prize Stories에도 수록되었다.

제목 : SUBURBAN DICKS

가제 : 누가 사쿠나나단을 죽였는가?

저자 : Fabian Nicieza

출판사: Putnam

발행일: 2021년

분량 : 370 페이지 예상

장르 : 스릴러



- * 유명한 만화책이자 영화 캐릭터인 ‘데드 풀’의 공동 창작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저자의 소설
- *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빠른 리듬감으로 미국의 한 중산층 마을과 그 곳에 숨겨진 인종적 갈등, 인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실감나게 그린 살인 미스터리

뉴저지 주 웨스트 원저의 한 중소 도시에서 신입 경찰 두 명은 아주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마주한다. 인도인 소유의 한 주유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내 백인들과 이민자 집단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가고 있던 긴장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매력적인 교외 미스터리 누아르이다.

사쿠나나단 삼살은 그 동안 삼촌 소유의 발레로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진상 손님들과 위험한 강도들을 만났다. 그리고 어젯밤 그는 이 주유소에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고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다. 경찰관 미셸 우와 니켓 파텔에게 있어 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중 그나마 심각했던 사건은 남편의 경멸에 시달리던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전자레인지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 정도였다. 아직 시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미셸은 가까이 가서 시체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과 도망가고 싶은 두 마음을 동시에 느꼈다. 미셸이 십분 전 신고 전화를 받고 니켓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익명의 신고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고 아직 모름지기 신참 내기인 미셸과 니켓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니켓은 인도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 마을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도인들의 항의로 경찰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한참 부족한 신입일 뿐이었다. 미셸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이 마을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경찰관이 된 사람이었는데 한시라도 빨리 로시 형사와 가민 형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박살 난 수박처럼 머리가 일그러진 사쿠나나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건물 가까이에 쓰러져 똑 바로 누워있었는데 손 근처에는 가스 노즐이 떨어져 있었고 4 번 기름 펌프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으며 펌프 스크린은 깨진 상태였다. 아마도 총알이 사쿠나나단의 두개골을 통과한 다음 펌프로 날아간 듯했다. 또한 그의 바지 앞쪽에는 이미 말라버린 큰 얼룩이 있었는데 지난 밤 비가 내린 적도 없었고 주변에는 음료나 컵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꽤 수상해 보였다. 미셸은 다시 벽돌 구조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중앙에 있는 비품실 문 입구는 잠겨 있었고 양쪽에는 음료수 기계와 제빙기가, 구조물 오른쪽 구석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미셸은 이 주변에서 총

다섯 개의 총알 자국을 발견했는데 세 개는 벽돌을 파고 들었고, 하나는 탄산 음료 기계를, 다른 하나는 제빙기의 왼쪽 금속 문을 찌그러뜨린 것 같았다. 미셀은 범인이 복면을 쓴 전문 강도가 아니라 초보 강도가 아닐는지 추측했다.

곧 웬 작은 밴이 엄청난 속도로 주유소에 도착했고 한 여자가 거대한 배를 부여잡고 뒤뚱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아직 어려 보이는 그 임신부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마도 그녀의 다섯 번째 아기인 것 같았고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미셀은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가 이 곳은 사건 현장이니 빨리 벗어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총알 자국과 처참한 시체까지 잠시 살펴보더니 시체의 바지 주머니를 가리키며 그 곳에 화장실 열쇠가 있을 테니 지금 급한 일부터 해결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때, 아이 중 하나가 엄마의 손에 오줌을 분사하기 시작했다. 미셀이 그녀에게 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범죄 현장을 오염 시킨 혐의로 그녀를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만약 그렇다면 경찰관인 미셀부터 먼저 체포되어야 한다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경찰들이 이 주유소 입구 중 한 곳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경찰차를 주차해두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셀과 니켓이 현장에 자동차를 잘못된 곳에 주차하는 바람에 현장에 타이어 자국이 생겼고 이로 인해 잠재적인 증거들을 다 쓸모 없게 만들어 버렸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발을 덮개도 씌우지 않고 이미 발을 들였으므로 살인자 및 또는 살인자의 자동차에서 떨어진 잔류물들이 다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미셀의 손에 노트나 펜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사건 현장을 기록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가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알이 발사된 방향과 사망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될 핏자국이 조금이라도 덜 마르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게다가 그녀는 차에 다시 타면서 미셀에게 한 타이어 자국을 가리키며 범인은 분명 총을 쏘면서 차에서 내렸을 것이라고 말한 후 재빨리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미셀은 얼마 후 그녀의 이름이 앤디 스텐이며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연쇄 살인범을 잡아낸 놀라운 이력을 가진 젊은 신입 프로파일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현지 경찰들이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사건으로 얼버무리려 하자 가정 생활을 하느라 지쳐 있던 앤디는 다시 이 살인 사건에 주목하고 폴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기자이자 지역 해커인 케네스 리와 접선한다. 그리고 점차 이들은 이 마을에서 아주 오랫동안 백인 거주자들과 새로이 마을의 주인이 된 이민자 가족 사이에서 인종적 갈등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 살인 사건이 그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 낸다. 심오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믹 스릴러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파비안 니시에자 (Fabian Nicieza)는 X-Men, X-Force, New Warriors, Cable, Deadpool 및 Thunderbolts 와 같은 마블의 주요 작품에 참여한 미국의 유명 만화 작가이자 편집자이다

NON-FICTION

제목 : THE ESSENTIAL PANDEMIC SURVIVAL GUIDE

가제 : 팬데믹 서바이벌 가이드: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154가지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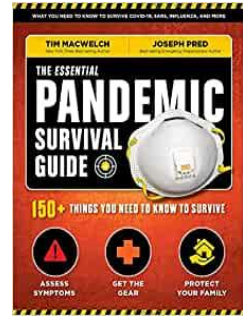
저자 : Tim MacWelch, Joseph Pred

출판사: Weldon Owen

발행일: 2020년 6월 9일

분량 : 112 페이지

장르 : 건강



*** 대유행 전염병 시대에 꼭 필요한 생존 가이드, Covid-19 예방 및 검역에 관한 필수 사항들과 대유행 바이러스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한 154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비드 19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암울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최초의 바이러 일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인 『Prepare For Anything』의 저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존 전문가인 팀 맥웰치와 조셉 프레드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이 전염병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팀 맥웰치는 20년 넘게 대중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비상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법을 지도 해왔다. 하지만 그 역시 비상 사태에서 살아남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정한다. 그는 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생존을 위한 투쟁은 초기 인간으로서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음에 주목한다. 고대에 살았던 인간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늘 혼란과 싸워야 했고 매일 단 하루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 생필품을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현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그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대피소의 모습과, 복장 및 기술은 달라졌지만 지난 수만 년 동안 인간의 필수품들과 취약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필요로 해왔던 것들을 늘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고대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불편과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의 ‘동굴’에는 에어컨만 달려 있을 뿐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굴 같은 장소에 숨어 지내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염병의 위기를 거듭 극복해왔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식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 생존 전쟁을 거뜬히 이겨냈다. 저자는 그들이 승리했다면 현대의 우리들도 거뜬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안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고 식품 저장실을 만들어 비상 식량을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법, 집에서 안전하게 격리 생활을 하는 법 등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150 여 가지 생존법을 소개하는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마스크와 장갑: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셀프-메이드 방호복
- 손 소독제
- 최고의 응급 처치 키트
- 가정 내 격리실 만들기
- 잠재적 격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현명하게 생필품을 확보하는 방법.
- 팬데믹 체크리스트: 음식, 물, 의약품, 애완동물 용품, 세면 용품, 개인 용품 등
-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돕기
- 스스로 나의 기분과 정신 상태를 관리하기
- 반려 동물 관리
- 가족 비상 계획을 세우기
- 지역 사회가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함께 돕기
- 가족과의 계획 및 준비 점검을 위한 12 개월 플랜
- 툴 키트 정리
- 살균 수 만들기
- 생존 우선 순위 차트 작성법
-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 싸기

<저자 소개>

팀 맥웰치 (Tim MacWelch)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인 『Prepare for Anything』과 『Hunting & Gathering』, 『How to Survive Anything』의 저자이며 생존 전략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중을 상대로 자연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법과 비상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인 'Advanced Survival Training School'의 설립자이며 강사이다.

조셉 프레드 (Joseph Pred)는 정식으로 훈련 받은 응급 구조사이자 소방관 및 재난 관리 전문가로서 공중 보건, 야외 생존 및 총기 안전 분야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공공 안전 책임자이며 야외 생존을 위한 지속적인 실험을 진행하는 'Burning Man festival'에서 응급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제목 : DEMOCRACY FOR SALE

가제 : 민주주의를 팝니다: 검은 돈과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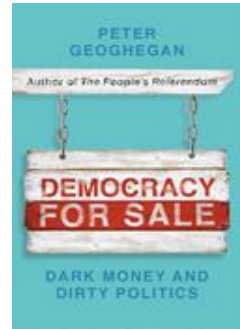
저자 : Peter Geoghegan

출판사: Apollo

발행일: 2020년 5월 14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정치, 사회



★ "세계 민주주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 『Moneyland』의 저자, 올리비아 불로프

★ 정치 및 현재 이슈 분야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예리한 관점으로 뽑아내는 저자 닐 벨튼 (Neil Belton)의 선정 도서 목록에 실릴 예정인 책

세계 정치 상황, 그리고 특히 브렉시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아일랜드의 저널리스트이자 이 책의 저자인 피터 게이건은 “영국 정치판을 사로 잡고 있는 '어두운 돈'을 조사한 지 2년 동안 나는 베일에 싸여 있는 기부금과 확인되지 않은 로비 및 익명의 정치 광고의 세계에 빠져 들었다. 우리 정치를 운영하고 있던 규칙은 이제 더 이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한, 2016 년 브렉시트를 위한 국민 투표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브렉시트는 현대 영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또한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결정에 투입된 돈과 영향력은 언론에 묘사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탈퇴 (Leave) 캠페인'에 투입된 엄청난 금액의 돈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그 돈을 ‘기부’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밝혀 지지 않은 상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제적인 관점으로 서구에서 나타난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고 이 것이 민주주의의 매커니즘을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 나갔는지, 또 민주주의에 어떤 해악을 불러 왔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시간순 및 주제 별로 이 책을 구성했는데 첫 장은 2016 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며 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법규 위반 사례들과 북 아일랜드 민주당 노동 조합 정당의 검은 돈에 대한 아론 벅크스의 지출 기록에 이르기까지 선거 중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 사례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 즉 불충분한 규제 점검과 균형,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구식 체제에 머물러 있는 법률 등에 대해 독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이야기들이라고 말한다.

중반부에서는 영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어떻게 납세자들과 사적인 자금이 브렉시트 찬성 국회의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국제적이고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싱크탱크 집단이 어떻게 웨스트민스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정치를 변화 시켰는지, 검은 돈이 이 틈을 타고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것은 2019 년 총선 기간 동안 일어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 즉, 온라인 정치 광고를 통해 최첨단식 방법으로 포퓰리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동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정치 캠페인을 은밀하게 지원해온 미국 기독교 우파 단체들과 전세계적인 유사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흐름이 202 년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진단했다.

<목차>

- 제 1 장: 서문
- 제 2 장 : 탈퇴를 위한 민주주의
- 제 3 장 : 브렉시트의 나쁜 소년들
- 제 4 장 : DUP의 검은 돈
- 제 5 장: 파티 속 파티
- 제 6 장: 영국을 향한 대서양 다리
- 제 7 장: 브렉시트 영향력 게임
- 제 8 장 : 디지털 강패
- 제 9 장 : 죽은 고양이
- (이하 생략, 총 1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피터 게오건 (Peter Geoghegan)은 아일랜드의 언론인이자 작가로 사회 및 정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전세계의 권력에 맞서 민주적 토론을 장려하는 웹사이트인 'openDemocracy'의 조사 편집자이다. 이 사이트는 포드 재단과 조셉 로운트리 자선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저자는 북 아일랜드에 관련된 글을 주로 써왔으며 스코틀랜드와 유럽의 다른 곳에서 독립적인 토론을 해왔다. 또한 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 및 멀티미디어 저널리즘에 전념하고 있는 독립 간행물인 Scottish Inquirer의 팀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으로는 『The People's Referendum』이 있다.

제목 : TRUTH TO POWER

가제 : 그래도 용기 내어 진실을 이야기 하세요: 진실을 위해 용기 내는 7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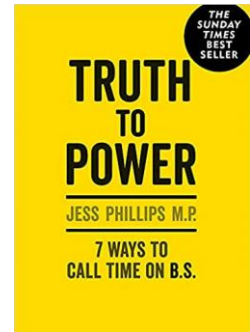
저자 : Jess Phillips

출판사: Monoray

발행일: 2019년 10월 3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처세



* “여태껏 웨스트민스터에는 제스 필립 같은 사람이 없었다. 제스는 용감하고 재미있으며 저돌적이며 재미있는 인물이다.” – 「새터데이 타임즈」

*2019 년 영국 의회 도서상 최종 후보작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 셀러

*영국 노동당 의원 제스 필립스가 말하는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7가지 방법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힘들게 싸웠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투표권과 동등한 지분을 갖기 위해 싸우다 죽었다. 이들은 노동 조합 운동, 인권 운동, 여성 운동을 구축했고 이들 덕분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권력에 대항해 기꺼이 진실을 부르짖은 이들 덕분에 발전된 사회를 누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왜 이리도 암울한 것일까? 지금 이 시대는 마치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 보디도 강렬하게 세상에 맞서길 원하고 있으며 변화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다들 잘 모르고 있다. 지금의 정치와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이해하기 차 힘들 정도로 깊은 안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인 지금 우익 세력이 유럽을 손에 쥐고 있고 성폭행한 여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돌고 다니는 남자가 백악관을 차지 했으며 중국 정부는 무슬림 신자들을 수용소로 내쫓고 있다. 2015년 영국 노동당 의원으로 선출된 후 가정 폭력, 성폭력, 인신 매매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열혈 정치인인 이 책의 저자 제스 필립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기엔 가진 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누군가가 어딘가 좀 문제적인 요소가 있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보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대화 자체를 피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 시비를 건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저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진실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해보라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다 보면 보복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보복은 더욱 강인하고 질긴 모습으로 재빠르게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하비 와인스타인을 처음으로 소환해 낸 그의 개인 비서 젤다 퍼킨스, 살해 된 몰타 언론인인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시아의 아들 폴 카루아나 갈리시아, 로치데일에서 아시아계 남성 집단들에 의해 어린 소녀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성 건강 의료 노동자 사라 로우 보텀, 아일랜드 임신 중절 합법화를 위해 캠페인을 주도한 카라 산케스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충만한 용기와 영감을 주는 영웅들의 이야기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소개하면서 이 세상 누구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고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기꺼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7가지 방법들을 이 책에 담았다.

<목차>

- 제1장. 모든 영웅들이 망토를 두른 것은 아니다
- 제2장. 공포를 느껴라
- 제3장. 계획은 무엇인가
- 제4장. 가속도를 높여라
- 제5장. 백래시
- 제6장. 관심종자
- 제7장. 계속 전진하며 즐겨라

<저자 소개>

제스 필립스 (Jess Phillips)는 2015 년 버밍엄 야드리 (Birmingham Yardley)의 노동당 의원으로 선출 되었으며 2016 년 9 월에는 여성 의회 노동당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저자는 가정 폭력과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일해왔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제목 : THE GRAND DELUSION

가제 : 거대한 착각: 원초적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지적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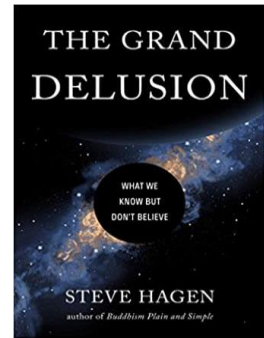
저자 : Steve Hagen

출판사: Wisdom Publications,U.S.

발행일: 2020년 8월 28일

분량 : 200 페이지

장르 : 인문



* 샘 해리스, 스티븐 호킹, 소크라테스가 한 자리에 모여 나눈 이야기를 모아 둔 것 같은 책

모두들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삶의 질서에 분명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류는 지난 세기 동안 실존적 질문 중 부분적으로나마 답을 찾았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궁금했던 것과 비슷한 의문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신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마음이란 무엇일까? 측정값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다. 저자는 이 모든 근본적인 질문들과 더 많은 의문점들은 하나의 실수, 하나의 불신, 하나의 거대한 망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거대한 망상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고 말한다.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로버트 프리식은 저자의 전작인 『Why the World Doesn't Seem to Make Sense』에 대해 "객관성과 지성이 모든 지식의 1 층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은 그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귀중한 여행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이 신간에서 저자는 전작에서보다 더 깊이 종교와 믿음, 철학과 탐구, 과학과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강점 및 한계에 대해 파고들었다. 또한 '저자는 현실이란 무엇인가, 진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새로운 빛을 더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질문들을 풀어간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저자 스스로 정한 가상의 대담자인 '누군가 (ANYONE)'와 밀도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오랫동안 대립해왔던 과학과 철학, 종교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신선한 관점을 더한다. 그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의 질문,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 우리가 옹호해왔던 가정과 신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답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황 포, 리차드 페이먼, 후이-닝, 에밀리 디킨슨, 조셉 캠벨,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등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빌려오기도 했다. 이 책은 이러한 모든 기본적인 질문들과 단일 오류, 거대한 망상이 어떻게 우리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지 밝히고 독자들이 이 망상에서 벗어나 위와 같은 난해한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목차>

감사의 말

서문 :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들

1 부 : 마음, 물질, 운동 및 음악

제1장. 궁극적 인 질문

제2장. 숭고한가? 사소한가?

제3장. 습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제4장. 옛지 있는 또는 옛지 없는

제5장. 우리가 무지를 영속 하는 방법

제6장. 상당한 혼란

제7장. 마음의 우주

(이하 생략, 총 2부 37장 및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스티븐 하겐 (Steve Hagen)은 St. 올라프 칼리지의 종교학 강사이자 미네소타 대학교와 알래스카 주의 과학 연구원이다. 1979 년에 그는 선승 불교의 승려로 임명 받았으며 1989년에는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 1996 년, 그는 미니애폴리스에 'Dharma Field Meditation and Learning Center'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계속 지도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베스트셀러 『Buddhism Plain and Simple』의 저자이며 종교, 과학 및 철학에 관한 몇 가지 다른 인기 있는 책의 저자이다.

제목 : SWIMMING LESSONS

가제 : 스위밍 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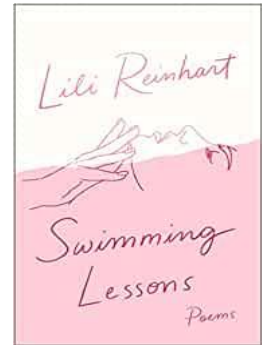
저자 : Lili Reinhart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20년 9월 2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시선집



* "라인 하트는 진정성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안과 우울증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퍼스 바자

*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통해 자신의 길을 탐색하고, 수백만 팬 모두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다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ASOS」

유명 배우인 릴리 라인하트의 첫 시집인 이 책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사랑, 유명인으로서 그녀가 직면해야 했던 불안과 우울증과의 힘겨운 싸움, 필연적으로 느껴야 했던 비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도발적이고 때론 한없는 위안을 선물하는 이 책에서 그녀는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 젊은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수영 수업을 하면서 느낀 자신의 감상들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시가 자신을 위로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밝힌다. 이어 시는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쓰고 싶어지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시에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중 일부를 말로 표현하고자 애썼으며 머리 속에만 머물고 있는 추상적인 그림들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시였다고 말한다. 다음은 이 시집에 수록된 작품 중 한 편이다.

아마도 완벽한 단어들을 쓰거나
그 단어들이 원래 그래야 했던 것 마냥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은 그리 진중하게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을 예쁘게 그려주거나
다른 화가들이 그러하듯 숨씨 있게
색들을 섞어낼 줄도 몰라요.
내 물감들은 아름답게 흐르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난 당신이 원한다면 여러 가지 언어들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만큼은
잘 할 수 있다고요.

시인 자신 특유의 솔직함과 낙관 주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는 시선집이다.

<저자 소개>

릴리 라인하트는 (Lili Reinhart)는 유명 배우이며 정신 건강 인식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시집이다.

제목 : THREADS OF LIFE

가제 : 실로 엮어낸 삶: 바느질 작품에 담긴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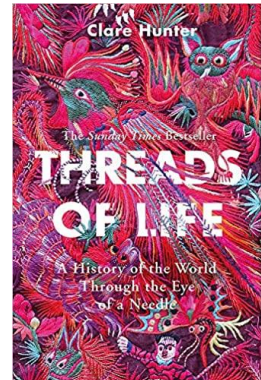
저자 : Clare Hunter

출판사: Sceptre

발행일: 2020년 3월 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예술, 인문



* BBC RADIO 4 BOOK 선정 이주의 책

* 『The Hare with Amber Eyes』와 『The History of the World in 100 Objects (100 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의 만남

* " 아름다운 책. 개인과 정치가 맞물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트레이시 슈발리에

* "저자는 그 동안 너무나 오래 다락방에 박혀 있었던 한 역사적 요소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더 헤럴드」

이 책의 저자 클레어 헌터는 어느 날 나이가 꽤 많은 친척 어르신의 오두막을 청소하다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가방에는 잃어버린 한 시절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장자리에 레이스 장식이 있는 테이블 보와 정교하게 수가 놓여 있는 솔, 1차 세계 대전 간호사들이 입었던 앞치마, 빅토리아 시대 아기 옷 무더기였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아직 잠결의 온기가 남아 있는 6,000 개의 육각형 천 조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패치 워크 퀼트가 있었다. 이것은 능수능란한 손길이 담겨 있는 위대한 작품, 다시 말해 그 언젠가 먼 과거에 잠을 자고, 사랑을 하고, 또 죽어간 자신의 가족들과 과거의 그물망이 어우러져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긴 잊혀진 예술 작품이었다.

하지만 저자가 이 책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섬유 생산이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세 시대에는 바느질 예술이 고급 예술로 추앙 받을 정도로 명성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 이후 재봉 기술은 여성들만의 노동, 집안일 쯤으로 취급 되면서 그 영광을 잃고 천대를 받게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에, 한때 권위 있었던 재단 기술조차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조롱을 받았고 위대한 바이유 태피스트리조차도 '소녀들의 재봉 견본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와 동시에 바느질은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억압 받는 여성들이 태피스트리와 자수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예로, 망명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여왕은 앰블럼과 암호를 이용해 옷을 장식하여 자신의 생득권을 알리고자 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여성들은 자신들의 '유순한' 예술인 자수 기술로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세기 동안 억압과 강탈에 시달리며 자신들의 땅과 언어를 빼앗긴 토착민들과, 노예, 난민

들 역시 직물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왔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섬유 예술가인 저자는 바로 이들의 운동과 예술 활동을 함께 도왔다.

역사에 대한 기록과 장엄한 회고록이 녹아 있는 이 책은 중세 프랑스의 정치적 선전에서 튜더 잉글랜드의 비밀 반역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의 실종자들(desaparecidos)의 어머니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1 차 세계 대전 군인, 싱가포르의 POW 캠프, 스코틀랜드의 가족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직물 예술에 관한 세계적인 연대기를 담고 있다. 현수막 제작자, 커뮤니티 텍스타일 아티스트 및 텍스타일 큐레이터인 저자가 수 백 년 동안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봉제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목차>

시작

제 1 장. 무명

제 2 장. 힘

제 3 장. 연약함

제 4 장. 포로

제 5 장. 정체성

제 6 장. 연결

제 7 장. 보호

제 8 장. 여정

제 9 장. 향의

제 10 장. 상실

제 11 장. 공동체

<저자 소개>

클레어 헌터 (Clare Hunter)는 20 년 이상 현수막 제작자, 커뮤니티 텍스타일 아티스트 및 텍스타일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글래스고에 커뮤니티 기업인 'NeedleWorks'를 설립했다. 또한 저자는 Aesthetica Creative Writing Award 의 최종 후보였으며 2016 년 Creative Scotland Award 에서 수상했다. 『Threads of Life』 는 저자의 첫 번째 책이다.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KILLING NOVEMBER

가제 : 아카데미 앱스콘디티: 노뎀버 죽이기

저자 : Adriana Mather

출판사: Alfred A. Knopf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3월 2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스릴러/2권 시리즈



*** 프랑스, 독일, 러시아 판권 계약 완료 / 2019 에드거 어워즈 후보작**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How to Hang a Witch의 저자의 시리즈 스릴러 소설**

울창한 숲 속, 이 학교는 결코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칼 던지기 기술, 독살 기술부터 시작해 속임수, 역사적 분석에 이르기 까지 일반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교에서 미스터리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노뎀버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베일에 싸인 비밀스러운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강렬한 흡입력을 가진 스릴러이다.

현재는 재무관리사이지만 과거에 CIA 요원으로 활동 했던, 노뎀버의 아빠는 항상 노뎀버에게 건강한 의구심은 사람이 모든 가능한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노뎀버에게 이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했고 노뎀버는 어제 아빠가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을 때조차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노뎀버는 완전히 중세 시대 같은 곳에서 깨어난 후, 이제 자신의 인생에도 진짜 위험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눈 앞에는 경비병처럼 보이는 사람이 벽에 붙어 서있었는데 분명 노뎀버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노뎀버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고 모두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 잘 갖춰진 방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노뎀버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속 로마 병사처럼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경비병에게 다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다. 노뎀버는 분명 아빠의 말에 의하면 아빠가 위험한 일을 처리하는 동안 안전한 대피 장소가 되어줄 새로운 기숙 학교로 전학을 온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은 아빠의 말과는 전혀 다른 곳인 것만 같았다. 얼마 후, 갑자기 열쇠 소리가 들리더니 방 안에 있던 경비병과 똑같은 모습을 한 또 다른 경비병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밖으로 따라나 오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바깥 모습도

감금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복도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현대적인 전등 대신 햇불이 켜져 있었고 천장은 아치형이었으며 손잡이 대신 걸쇠를 사용하는 무거운 나무 문들이 있었다. 이 곳은 마치 미국에 있을 법한 평범한 건물들이 아니라 중세 시대애나 어울릴 법한 오래 된 성 같았다.

이윽고 노뱀버는 양초들의 연기와 고서로 가득한 영국 여왕이나 쓸법한 한 사무실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 학교의 교장인 블랙 우드를 만났다. 그녀는 이 학교의 이름은 '아카데미 앱스콘디티'라고 소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는 순종과 복종을 명령하는 듯 했다. 교장은 노뱀버에게 여기까지 오는 데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궁금한 것은 없는지 물었고 노뱀버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언제 이곳에 도착했고 언제 잠들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교장은 아마도 여정 중에 잘 도착하기 위해 한 일 때문에 부작용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뱀버는 '부작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혹시 누군가가 자신에게 약을 먹인 것은 아닌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늘 낮선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빠를 통해 교육 받긴 했지만 그 말을 여기고 기내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신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노뱀버는 교장에게 혹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전화기 한 대 보이지 않았고 교장 또한 교칙상 전화기 사용은 불가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교장은 원래 학기 중에는 신입생 입학은 허가 하지 않지만 특별히 노뱀버의 입학을 허락한 것이며 이 곳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실명을 말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장은 이 성 밖에는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으므로 학교를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 했고 다른 학생들을 다치게 할 경우 '이 에는 이' 규칙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뱀버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조금만 버티면 원래 생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 교장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기로 했다.

노뱀버는 다시 건물 창문들에 설치된 뾰족한 장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교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교장은 최근 치명적인 사건들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은 노뱀버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그저 그녀를 안타깝다는 듯 바라 볼 뿐이었다.

이후 노뱀버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며 암살자, 카운슬러, 스파이 및 대변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노뱀버는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게 된다. 노뱀버는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 학교의 기괴한 전략 게임에 적응해야만 한다. 노뱀버는 과연 이 학교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저자 소개>

아드리아나 매더 (Adriana Mather)는 『How to Hang a Witch』, 『Haunting the Deep』의 저자이자 프로듀서 및 배우이다. 그녀는 수상경력을 가진 영화 'Honeyglue'를 제작 한 Zombot Pictures라는 제작 회사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제목 : GET A GRIP, VIVY COHEN!

가제 : 정신차려, 비비 코헨!

저자 : Sarah Kapit

출판사: Dial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2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성장소설



★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도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야구 경기 기술, 결단력, 열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매력적인 야구 이야기이기도 하다.”- 「커커스 리뷰」

★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긍정과 낙관이 넘치는 이야기이면서 자폐증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다루고 있는 소설”- 「북 리스트」

비비 코헨은 메이저 리그 스타가 될 때까지 야구를 그만 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비비의 엄마는 여학생인데다 자폐증을 가진 비비가 하루 빨리 야구를 포기하기만을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비비의 상담 선생님은 비비에게 한 사람을 정해 펜팔을 해볼 것을 권유했다. 비비는 자신의 펜팔 대상으로 자신의 영웅이자 메이저 리그 투수인 VJ Capello를 선택했다. 비비는 과연 꿈을 이루게 될까? 남들과 다른 상황, 남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과 스스로의 용기 덕분에 점차 성장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비비는 자신의 우상인 야구 선수 VJ 처럼 너클볼 (두[세] 손가락을 굽히고 공을 던지는 느린 공) 투수가 되고 싶었다. 비록 비비의 엄마는 늘 역사상 메이저 리거 중에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긴 했지만 비비는 오히려 그렇다면 자신이 그 최초의 여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꿈의 멘토 역시 바로 VJ였다. 사실 3년 전, 비비는 VJ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VJ는 청소년 야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비비는 그 때 캘리포니아에서 VJ가 참가한 경기에 자폐증 재단 및 부모님과 함께 관람을 하러 갔었다. 사실 비비는 시끄럽고 지루한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고 비닐 좌석이 자꾸 몸에 붙는 것도 불쾌해 하고 있었다. 때문에 비비의 엄마는 경기장을 나와 비비를 데리고 클럽 하우스로 들어가 선수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사실 자폐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비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하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때, VJ 만큼은 조용하게 비비에게 다가와 너클볼 방식으로 공을 쥐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날 처음으로 비비는 야구 선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 같이 야구 연습을 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내준 과제도 할 겸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이제는 유명 선수가 된 VJ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답장은 예상 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비비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민을 담은 편지를 VJ에게 보냈다.

비비의 또 다른 고민은 평소 자신과 함께 늘 야구를 하며 놀아 주던 오빠가 어떤 일인지 슬슬 비비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평소처럼 오빠의 방에 들어가면 노트북을 켜고

비비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 비비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영상을 반복 재생하듯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다행히도 네이트는 다시 비비에게 다가와 함께 공원에 가서 야구 연습을 하자고 했고 비비는 공원에서 오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고 VJ가 알려준 대로 야구 공을 던졌다. 그리고 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현재 팀을 꾸리고 있는 중인 한 야구팀 코치가 비비의 너클볼 실력을 보고 야구팀에 들어오는 것이 어떨것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비비가 여자아이인 것도,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말을 들은 비비는 미친 듯이 박수를 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나타난 코치의 아들이자 비비의 학교 한 학년 선배인 카일을 보자 비비는 표정이 굳어버렸다. 카일은 여자가 야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비비를 향해 은근히 조롱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비는 엄마가 분명 야구단에 입단하는 것을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비비의 엄마는 여자 아이들에게 야구란 위험한 스포츠이며 게다가 자폐증을 가진 비비가 익숙하지 않은 자극과 사람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걱정할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비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분명히 맞서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네이트의 든든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상 보다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비비의 엄마는 비비가 야구를 하려는 마음이 자폐아들이 보이는 특성 중 하나인 ‘집착’ 현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비비의 부모님은 이 문제를 비비의 담당 의사와 논의하기로 했고 그 결과, 비비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야구단에 입단해 본격적인 투수로 야구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드디어 VJ가 비비에게 답장을 했고 부모님의 동의 하에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비는 야구단에 입단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VJ에게 이야기 했고 코치의 아들 카일이 자신을 괴롭히고 야구를 하다 뇌진탕을 당해 다시 야구를 그만둘 뻔했던 상황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했다. 비비는 야구 팀에서 활약하면서 포수인 알렉스와도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비는 남자를 좋아하면서도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오빠 네이트를 돕게 된다. 꿈과 용기를 가진 한 소녀가 사람들을 돕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꿈을 이루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사라 카피트 (Sarah Kapit)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여성, 의학 및 역사등 기타 특이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녀는 장애 권리와 신경 다양성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으며 자폐증 공동체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